

## 주요약력

❖성명: 박종인 조선일보 선임기자

### <프로필>

1992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다.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 있다고 믿는 언론인이다.

2015년부터 조선일보에 '박종인의 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역사기행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 잘못 기록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땅에 남은 흔적을 통해 알아보는 연재물이다. 2019년 한국과 일본, 폴란드 현지 취재와 사료 조사를 통해 '세상을 바꾼 서기 1543년'이라는 기획을 연재했다. TV조선에 같은 제목으로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9년 재중 탈북자 문제를 다룬 '천국의 국경을 넘다'로 삼성 언론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한일관계사로 본 조선 왕조 실패의 경영학 《대한민국 징비록》,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찾는 《박종인의 땅의 역사》 1·2와 역사기행 《여행의 품격》, 글쓰기 가이드 《기자의 글쓰기》, 인물기행 《한국의 고집쟁이들》, 《행복한 고집쟁이들》, 《골목길 근대사》(공저), 여행 에세이 《내가 만난 노자》, 인도 기행서 《나마스떼》, 《우리는 천사의 눈물을 보았다》(공저)와 한국 여행 가이드북 《다섯 가지 지독한 여행 이야기》가 있다.

옮긴 책으로는 미국인에 의해 뉴욕으로 끌려온 에스키모 소년 이야기 《뉴욕 에스키모, 미닉의 일생》과 인도 서사시 《마하 바라타》가 있다.

1966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뉴질랜드 UNITEC School of Design에서 현대사진학, 사회에서 인생을 전공했다.

### <연락처>

■ 전화(055)240-6090 ■ 팩스(055)240-6091

# 초청장



사단법인 **합포문화동인회**

## 초대합니다

세계최초 금속활자 발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고, 바람소리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훈민정음' 을 가진 나라 조선이 서적의 출판과 유통을 국가가 독점하고 일반인의 서적유통을 엄격히 처벌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아십니까?

같은 시기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신유한은 해유록(海遊錄)에서 '오사카는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의 장관이었다.' 고 보고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神에 저항하는 '지동설' 이 출판되고, 교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반박문이 대중들에게 배포되어 종교개혁, 르네상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책을 통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 지적 호기심의 탐구가 허용된 나라와 그렇지 않았던 나라가 머지않아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는지를 역사적 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상을 핑계로 미루어왔던 책읽기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적발간과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조선의 뼈아픈 역사를 돌아보면서 '책'의 가치를 떠올려 봅니다.

2020년 7월 일  
(사)합포문화동인회  
이사장 강재현 올림

## 제507회 합포문화강좌

..... 주 제 .....

**서점 없는 나라 조선과 그 이후**

-학문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역사에 미친 영향

..... 강 사 .....

**박종인** 조선일보 선임기자

■ 일 시 : 2020년 7월 9일(목) 오후 7시 15분

■ 장 소 :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

※동행하실 분이 계시면 함께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